



글 그림 박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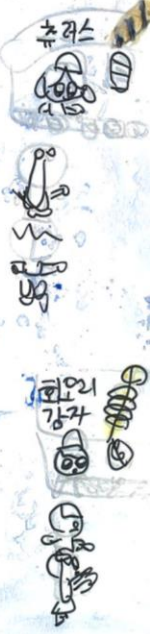
글 그림 박하영



어느날, 하울이와 하온이가 놀이동산에 갔어요.  
 “우와! 굉장하단다!” “그러니까?”  
 “재밌게 다!” “응? 뭐가 먼저 타자 나면 뭐?”  
 “음... 그러게!” “아! 단다!”



하울이가 청룡열차를 탔는데 열차가 갑자기 다른세계로  
 가버렸어요.  
 “어, 어, 왜 이러지?!”  
 “헛, 누나!”  
 “아! 하온아!”





나자기 사랑한 누나를 찾으려고 하~중,  
 "어! 누나구야!"  
 "아! 나! 도와줄 조수야."  
 "자, 여기 저!"  
 "어. 어. 음."



"누나를 찾으려면 미션을 하고 보석병을 구해야!"  
 "기보석병을 어디서 구해?"  
 "나의 누나가 재빨리 생각해!"  
 "이렇게 하려면 복잡하잖아!"  
 "내가 도와 주잖아!"  
 "정말?"





그렇게 하몬이는 조수와 다른 세계로 떠났어.  
 "여긴 어디지?" "너와 내가 가버린 세계야." "그래?"



이선을 끝낸 하몬이는 보석병을 구해야 했어.  
 "보석병을 어디서 구하지?"  
 "절어줘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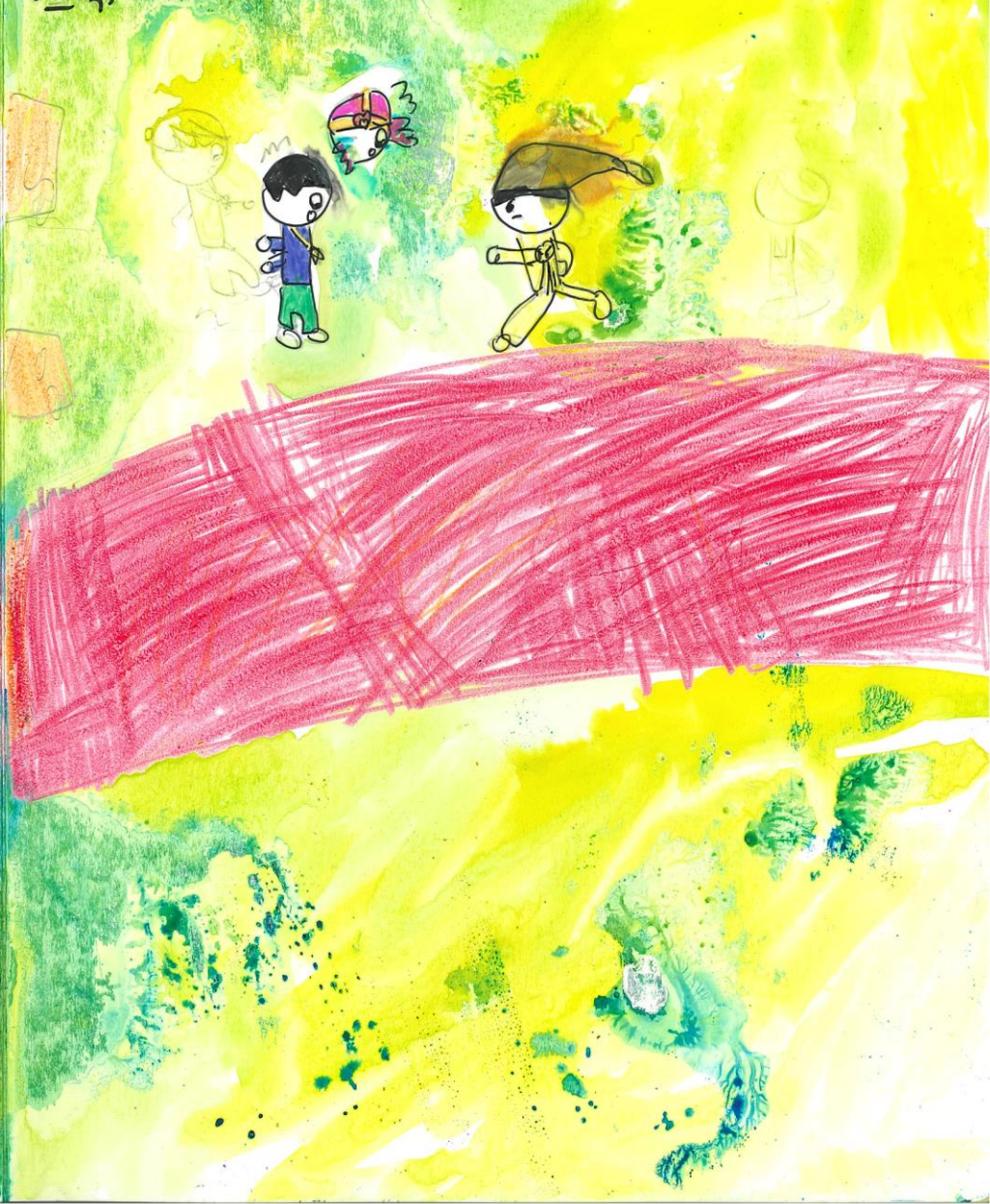




1. 전동, 거대한 성을 발견했어요.  
 (지진이야?)  
 '아아 여기 주변에 살고 있는 거야.'  
 '대롱대롱 눈썹에??'  
 '응.'



'침입자다!!'  
 ((헉!!))  
 '거기!!'  
 '아아'





후... 살았다...  
 응? 이걸 뭐지?  
 아아 보물상자 열거야.  
 열쇠를 찾아보자.  
 '어디 열쇠 저기있다'고  
 '응응 그러네'



'어디 열쇠 있다'고?  
 '응 보자'고  
 '이거 열쇠'고  
 '응 열쇠'고  
 '그럼'고  
 '그럼 열쇠'고  
 '이 열쇠'고





이렇게 그려서,  
그럼 그림 그려야겠지  
그런이가...)



그 순간, 그림을 그려서  
“아! 이제 뭐야?”  
“부석부석이잖아?”  
“아!”





한편...  
“어! 거기 빛은 뭐지?”  
“가벼운, 뭐.”



“거기서?” “헉?”  
하문과 조수는 갑작스럽게 쳐들어왔고,  
“앗! 너무 크다!”  
“도망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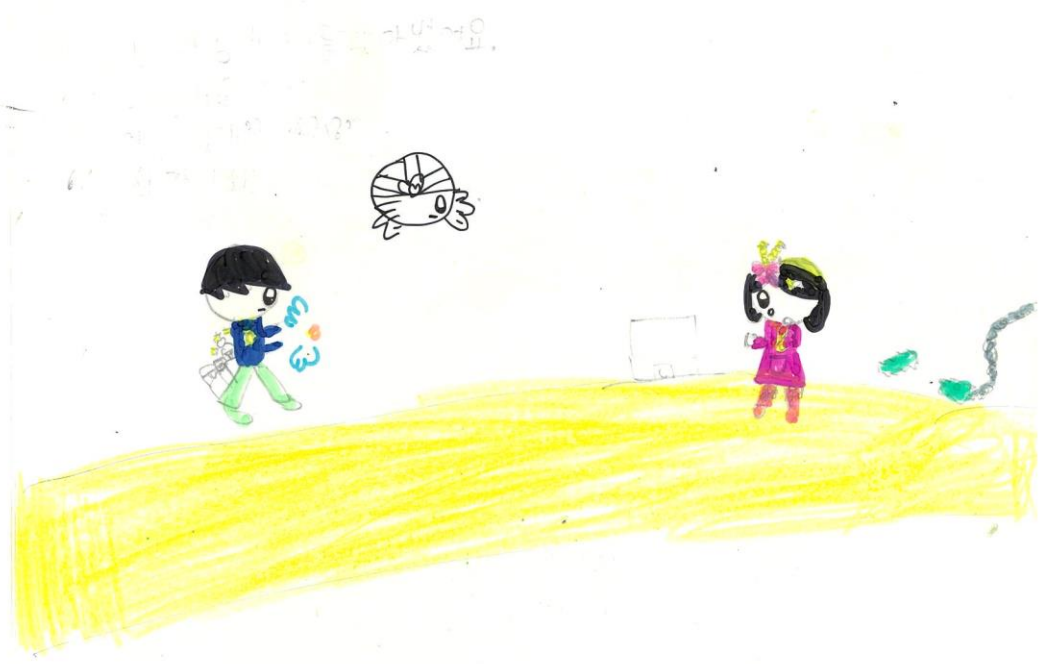
장난감 있던 누나부터 찾자

안녕하세요  
3월 4일 화요일



“어? 누나?”

“어? 하운이?”  
하운이는 아침에 누나를 찾아왔어요.





“와와 날 어떻게 구했대?”  
 “응... 여기하자면 좋겠어.”  
 “그정도야?”  
 “응”



그런데 갑자기 녹이공원으로 순간  
 이동했어.  
 “어, 여긴 녹이동산?”  
 “그럼네”  
 그렇게 하왕이는 녹이공원을 갔단다?





